

## 〈발표2〉

복지심(心)의 구조화에 관한 예비적 연구<sup>1)</sup>

타니카와 카즈아키(谷川 和昭)(관서복지대학)

## I 서 언

오늘의 일본 사회복지를 결정적으로 방향지었던 공적 보고서로서 「사회복지 기초 구조 개혁에 대해서(중간 요약)」(1998년 6월)가 공표된바 있다<sup>2)</sup>. 여기에서 제시 되어진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란 생활문제에 대하여 사회연대의 시점에 선 국민 전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사회복지의 기초가 되는 것은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정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를 만들고 유지해 가는 것은 국민 전체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복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심은 그 개념이 처음 등장한 1970년대 당시에 비해 스포트 라이트를 받지 못한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학) 사전, 용어집은 다수 있으나,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지심」이 기재된 사전류는 근소했다.<sup>5)</sup>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복지의 대인원조의 실천을 전개하는데 있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는 법제적, 직업적, 정신적 공분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up>6)</sup> 그리고 복지심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도 혹은 환경적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이들과 접하는 대인원조 전문직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심을 갖는 것은 전문직능상의 지식, 기술과 같은 이론무장을 하기 이전의 필수조건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인원조를 실천하는 자가 갖추어야 만 하는 복지심의 구조를 예비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미래의 사회복지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 1) 본 연구는 일본정신보건사회학회 기관지 『メンタルヘルスの社會學』 13에 게재되어진 「福祉の心の構造化の試み」(pp.50-57)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자유기술 내용의 분석에서는 조민정(關西福祉大學非常勤講師)씨의 협력을 얻었음을 부연해 두는 바이다.
  - 2) 特集 社會福祉基礎構造改革の論点～中社審 中間まとめを讀む月刊福祉, 81(10), 10-55,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8
  - 3) 炭谷 茂編著: 社會福祉基礎構造改革の視座～改革推進者たちの記録～, ぎょうせい, 東京, 2003
  - 4) 「福祉のこころ」をめぐって, 日刊福祉, 61(4),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2-41, 1978
  - 5) 現代福祉學レキシコン, 社會福祉學小辭典, 國民福祉辭典など
  - 6) 小島蓉子: 福祉の心(2), 作業療法・ジャーナル, 23, 891-895, 三輪書店, 1989

## II. 방법

대인원조의 전문가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가 예비적 연구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및 간호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하였고, 설문지에 따른 집합설문조사를 2007년 4월에 실시하였다. 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 배려로써 대상자에게 조사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설명하였다. 조사결과, 200명으로부터 협력을 얻어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분석에는 유효 회수 중 분석항목 전부에 결함이 없는 193표(분석대상률 96.5%)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복지심에 관한 웹의 기재정보를 가능한데로 섭렵하였다. 복지심에 관한 항목을 수집하기 위해, 복지심(「福祉の心」 or 「福祉のこころ」)을 키워드로 구글 (Google)을 사용하여 웹 전체를 검색, 최종적으로 65항목을 채용했다. 그리고, 복지심이 의미하는 것으로써 「어느정도에 해당하는가」를 4단계 평정으로 답변을 요구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복지심을 구성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회전후 요인 형태 행렬(factor pattern matrix)에 착목하여 요인을 해석했다.

자유기술내용의 분석은 학생의 전공별로 얻어진 회수내용에서 1행씩 혹은 의미가 통하는 내용을 데이터로 재구성하여 유사한 내용을 집약하여 카테고리화 하였다.

## III. 결과

회수된 193명 중 남자31명, 여자162명으로 평균연령은 $19.4\pm 1.0$ 세이며, 전공별로 보면 사회복지 전공 학생이 105명(남자27명, 여자78명), 간호전공 학생이 88명(남자4명, 여자84명)이었다.

65항목에 대해서 요인을 8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행한 결과, 비교적 단순구조의 요인 형태 행렬이 나타났다. 요인적재량0.35이상의 항목에 착목해 보면, 제1요인은 「타인에 대한 헌신」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이하 제2요인은 「보편적 이해」, 제3요인은 「인간존중의 사회연대」, 제4요인은 「대화를 통한 배움」, 제5요인은 「어릴때부터 육성하는 것」, 제6요인은 「다문화의 공생」, 제7요인은 「생태학적인 입장」 그리고 마지막 제8요인은 「자기육성」으로 해석하였다.

회수되어진 자유기술 내용에서는 유사 내용을 집약한 결과 검출되어진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전공 학생은 ①소중히 여기는 것, ②행복, ③존중, ④상대방의 시점, ⑤자유, ⑥자연, ⑦행동, ⑧사랑, ⑨모든사람, ⑩서로 의지하는 것, ⑪공생, ⑫상조, ⑬상냥함, ⑭보편성, ⑮평화, ⑯정의로 나타났다. 한편, 간호전공 학생은 ①소중히 여기는 것, ②상조, ③서로 의지하는 것, ④상대의 시점, ⑤존중, ⑥자발성, ⑦행동, ⑧공생, ⑨협력, ⑩자유, ⑪자연, ⑫좋은 삶, ⑬친근감, ⑭인간, ⑮행복, ⑯보편성, ⑰이해, ⑱모든사람, ⑲천성, ⑳평등으로 나타났다.

## IV. 고찰

대인원조에 임하는 자에게 복지심은 특히 요구되어진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장래에 인간의 생활과 생명에 직결하는 대인서비스에 종사할 것이 예상되는 사회복지와 간호를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설문지 조사에 대한 거부는 거의 없었으며, 해석이 가능한 사이즈의 샘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설정한 질문항목은 어디까지나 웹 전체를 검색하여 취사선택 한 것이며, 데이터가 편중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의 해석과 일

반화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 요인 분석을 통해, 복지심에는 타인에 대한 헌신, 보편적인 이해, 인간존중의 사회연대, 대화에 의한 배움, 어릴때부터 육성하는 것, 다문화의 공생, 생태학적인 입장, 자기육성이라고 하는 8요인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복지심을 측정하는데 있어 타인에 대한 헌신에서 자기육성에 이르기까지 8개의 요인을 가정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요인은 각각 특점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 단지, 자기육성에 관해서는 3항목으로만 구성되어져 있고, 다른 요인에 비해 내적정합성이 부족한 점을 보았을때, 금후 자기육성에 관한 항목을 추가작성하여 그 내용의 폭을 넓히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최종적으로 남겨진 항목은 복지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특정짓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반면에 간과한 항목과 척도화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항목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을 구성하는 조사항목은 잠정적인 복지심의 구성요소로서 이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체의 약4분의 1을 차지하는 높은 기여율에 착목하여, 제1요인으로써 추출되어진 타인에 대한 헌신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타인에 대한 헌신은 복지심, 사회복지, 대인원조의 기본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좀처럼 타인의 아픔을 이해 할 수 없지만,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즉, 타인에 대한 헌신은 복지심의 요점이며,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과 같이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사려된다(789).

부연하면, 자유기술내용의 분석에서 추출되어진 카테고리도 또한 복지심의 본질에 임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와 간호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카테고리에 소중히 여김, 상호, 서로 의지함, 상대방의 시점, 공생, 행복, 존중 등이 있었으며, 특히 소중이 여김에 대해서는 쌍방의 학생으로부터 기입이 많았던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한 금후의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해 두고자 한다. 첫번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계학적 검증을 거듭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겸비한 대인원조자를 위한 복지심의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측정대상자를 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사회인에게 넓혀 적용함으로써 조사항목을 더 깊이 음미해 가는 것이다. 두 번째, 질적분석을 행하여 복지심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특정해 가는 것이다. 복지심은 대인원조 전문직을 지망하는 학생과 현재 대인원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회인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라고 당연히 겸비해야만 할 가치관이며<sup>10)</sup>, 이러한 공통인식을 얻기 위해 명확한 근거와 방향성을 제공해 줄 것이 기대되어진다. 금후의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시야에 두고 추진해 나아가자 한다.

7) 阿部志郎：コミュニティ, 99-100, 海聲社, 東京, 1998

8) 神田英輔：飢餓と飽食～支え合う21世紀の国際社會を構築するために～, 社會福祉研究, 88, 96-100, 鐵道弘濟會, 2003

9) 菊池みほ：福祉の心～共に支え合う社會のために～, 藥とその周辺, 3, 31-45, 昭和藥科大學, 1999

10) 安藤 治：福祉心理學のこころみ～トランスパーソナル・アプローチからの展望～, 6-9, ミネルヴァ書房, 京都, 2003